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몸'의 의미

— '이영자 사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담론 분석

백선기/손성우

1. 서론

—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오늘날 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몸을 상품화하는 추세가 보편화됨에 따라 몸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몸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소비를 자극할 뿐 아니라 담론 생산의 대상으로도 자리 잡는 것이다. 특히 다이어트는 몸에 대한 사회적 관리 및 훈육을 대표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진행적이며 지속적인 실천의 양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다이어트는 멈추지 않고 유통되는 담론과 권력의 축 위에 항시적으로 놓여 있으며 몸에 대한 미시적인 권력이 드러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이어트는 일상적 환경에서 끊임없이 강조될 뿐 아니라 거의 강제시되고 있다. 취업을 앞둔 여성들에게는 경쟁에 있어 유리한 외모를 갖추기 위해, 미혼 여성들에게는 결혼이나 이성 관계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다이어트는 꾸준히 권유되고 시도되는 것이다. 때문에 다이어트는 현대 사회를 살아 나가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까지 묘사된다. 이처럼 사회적인 불평등을 조장하고 심리적인 상해와 병리 현

상으로까지 확장되는 다이어트의 지속적인 붐은 문화 현상을 넘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발생한 '이영자의 다이어트 파문'은 시사해주는 바가 많으리라 본다. 이 사건으로부터 미디어와 대중 문화, 다이어트와 이데올로기 등이 서로 얽혀 짜낸 우리 사회의 몸 담론과 그 문제성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통해 보면 담론들이 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다이어트 파문' 이전의 다이어트에 대한 호의적인 담론들과 파문 이후 생겨난 적대적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담론들은 '같은 몸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2월부터 인구 회자된 '다이어트 성공 신화'부터 '땡김이 시비'에서 '지방 흡입술'과 협박 사건, 소송에 이르는 파문의 전모는 한 개인의 몸이 사회의 권력망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 나가고 영향을 미치며 또 어떤 상반된 위상을 얻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이영자 파문을 해부한 MBC TV의 「PD 수첩: 다이어트 산업, 스타를 이용하라」 편과 이영자가 직접 다이어트 담론을 형성하는 데 참여한 SBS TV의 「초특급 일요일 만세」의 '이영자의 다이어트 특강' 및 '실제 상황, 이영자 시집간다' 등을 통해 몸과 관련된 담론들을 되짚어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심층적 의미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나아가 이로부터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합의하는 바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I. 몸의 사회학

기든스 A. Giddens에 의하면 몸의 사회학이란, 몸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몸은 집단의 규범이나 가치,

사회적 경험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는데, 사회적 삶과 몸의 상호 연관성을 학자들이 인식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한다.¹⁾

터너 B. Turner에 의하면 데카르트 R. Descartes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래 사회학은 정신과 몸의 이분법을 채택하고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정의하게 만드는 정신에 초점을 두면서 철학적 전통이 이어져왔다고 한다.²⁾ 마르크스 K. Marx, 베버 M. Weber, 뒤르켐 E. Durkheim, 만하임 K. Mannheim 등 고전 사회학자들은 몸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처럼 사회학에서 몸이 중심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사회학자들이 생물학이나 심리학이란 학문으로 설명 가능한 인간 체험의 측면을 연구에 포함하기 꺼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몸은 사회학에서 존재하는 동시에 부재하는 모순적 위치를 차지하며 본격적 연구 대상보다는 늘 부수적인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몸에 대한 연구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는 몸에 대한 자연주의적 관점이다. 그것은 인체의 능력과 한계가 개인을 규정하고 국내외적인 생활 양식을 특징짓는 사회·정치·경제적 관계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즉 부, 법적 권리 및 정치적 권력에서의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몸의 결정력에 의해 주어지거나 그것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³⁾ 이것은 특히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나 소수 인종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는데 18세기 들어서야 지배적 관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주의적 관점은 20세기 들어 1960년대 후반, 70년대 여성 운동이 부상했던 시기, 70년대 초 경제 위기가 닥쳤던 시기에 유전학 이론들과 함께 재등장하게 된다. 소위 사회 생물학 sociobiology이라는 이

1) 앤터니 기든스, 김미숙·김용학·박길성·송호근·신광영·유홍준·정성호 옮김,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2001, p. 148.

2) 크리스 쉘링 지음, 임인숙 옮김,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9, p. 29.

3) 앞의 책, p. 69.

름으로 알려진 학문이 위세를 떨치고 여성과 소수 인종들의 열등함을 공인하고 이에 따르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또 하나의 몸에 대한 관점은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이다. 이는 몸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입장을 공유하는데 이 관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연구는 더글러스 M. Douglas의 인류학, 푸코 M. Foucault의 저작, 고프먼 E. Goffman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더글러스의 인류학은 물리적인 몸이 지각되고 경험되는 방식을 사회적 몸이 구성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푸코는 몸이 담론에 의해 구성되며 사회 권력의 작용점이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몸은 담론의 초점일 뿐 아니라 일상적 관습과 대규모 권력 조직의 연결 고리 그 자체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푸코의 연구에 힘입어 남녀의 성적 불평등과 권력 관계를 드러내는 접근 방식을 통해 몸과 권력, 담론의 관계를 파헤친다. 고프먼의 연구는 몸을 인간 행위의 필수 요소로 간주하는 한편, 하나의 물질적 자산이자 사회에 의해 그 중요성과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을 함축한다.⁴⁾

이러한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은 몸과 권력의 관계, 몸에 대한 사회적 정의 등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여전히 몸의 물질성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몇몇 사회학적 분석에선 자연주의적 관점과 사회 구성적 관점을 재조정하고 있다.

II. 몸과 담론

푸코는 권력의 작용점을 몸이라 파악한다. 그의 권력 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감시와 처벌 *surveiller et punir*』과 『성의 역사 1: 지식에의 의지 *histoire de la sexualité: I la volonté de savoir*』이다. 이 두 권의 책에서 그는 근대 사회에서부터 지식이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주장하면서 지식-권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으로 고고학과

4) 앞의 책, p. 125.

제보학을 내세운다.

푸코에게 지식과 권력은 유착적 관계를 의미하며 그것은 담론을 통해 형성되는데, 먼저 그의 권력 개념부터 파악해보기로 한다. 푸코의 권력 개념이란 하나의 전략·관계·기능이다. 권력의 존재론적 지위는 사물이 아니라 사물들을 서로 관계 맺게 하는 힘의 기능이다.⁵⁾ 따라서 권력은 특정인에게 전유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와 '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집단적·구조적 효과인 것이다. 또한 그것은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장소의 체계들을 변화시키는 힘들의 운동이다. 권력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힘의 체계를 의미하므로 지배 권력이 있는 곳에는 저항의 권력 또한 생성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푸코는 무엇보다도 권력의 생산성을 강조한다. 그 생산성을 담당하는 것은 '담론'이다. 담론의 생산 및 유통은 권력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왜냐하면 권력 관계를 구축하는 '진리 담론'이 생산되지 않고서는 어떤 권력의 행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권력을 통해 진리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⁶⁾

담론은 지식에 의해 형성되며 그 지식에 의해 권력은 작동된다. 그리고 지식 속에는 반드시 권력이 작동한다. 앞서 말했듯 권력은 지식과 유착 관계를 지닌 지식의 효과인 셈이다. 아울러 권력이 수행하는 사회적 재편의 효과는 실질적인 몸에 대한 통제로 나타난다. 몸을 작용점으로 삼는 미세한 권력 효과가 발휘되는 메커니즘을 푸코는 '권력의 미시 물리학'이라 부른다.

III. 몸과 상징적 권력

몸에 대한 푸코의 사회 구성적 관점을 보완해주는 또 다른 사회학적 입

5) 앞의 책, p. 132.

6) 미셸 푸코, 이정우 옮김, 『담론의 질서』, 서강대 출판부, 1998, p. 137.

장은 부르디외에게서 발견된다. 즉, 담론에 의해서 몸이 구성된다는 푸코의 담론 중심주의는 사실상 물질로 구성된 몸의 본질적인 측면을 쉽게 간과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제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부르디외는 사회학에서 늘 대립적 구도를 이루는 구조와 개인, 다시 말해 구조의 담론적 속성과 개인의 물질적 속성을 매개하는 개념을 모색했다. 그는 자신의 학문 경향을 '발생론적 구조주의'라고 명명했는데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개념이 바로 '아비투스(habitus)'와 '상징 권력(symbolic power)'이다.

아비투스는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la distinction*』에서 실증적으로 다뤄지는데 쉽게 말하자면 사회 속에서 개인이 획득하는 영구적 성향 체계이다. 그것은 개인의 지각·인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체화된 구조적 힘이다. 이것이 보다 몸에 구체화된 형태가 바로 'body hexus'라 불리는 신체 적성이다. 계급에 따라 먹는 방식, 말하는 방식, 몸짓, 취미와 호오의 세부적 차이가 다르게 이뤄지는 것은 바로 아비투스의 영향력 때문이다. 개인의 몸은 다시 말해 외부 구조의 반영인 셈이다. 사회적인 현실은 사물과 두뇌 속에, 장과 아비투스 속에, 행위자들의 외부와 내부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⁷⁾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구조화된 구조'이다.

구조화된 구조인 아비투스는 구조의 힘의 지배를 받는 개인의 상태를 함의하는데, 지배 권력이 권력의 직접적 모습이 아닌 문화의 형태로 개입된다는 것에서 무의식적 불평등과 억압과 착취, 소외가 발생한다고 부르디외는 주장한다. 문화화된 권력, 개인이 적응하고 개인의 몸에 체화되는 이러한 복합적 권력을 그는 '상징적 권력'이라 부른다. 상징적 권력이란 피지배자의 복속을 끌어내는 것을 전제로 한 지배 양태이며 그 권력 효과는 사회적으로 주입된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다.⁸⁾ 그리고, 상징적 권력은 개인의 몸속 깊이 침투되어 개인의 무의식적 실천 속에서 구조의 불평등

7) 파트리스 보네워츠, 문경자 옮김, 『부르디외 사회학』, 동문선, p. 99.

8) 앞의 책, p. 113.

을 재생산한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I.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의 몸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특히 '이영자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 1: '이영자 사건'을 둘러싸고 형성된 담론들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이영자 사건' 속에서 표출된 여성의 몸과 다이어트는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가? 아울러 그러한 의미화 속에서 발견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II. 분석 대상 및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MBC TV의 「PD 수첩: 다이어트 산업, 스타를 이용하라」와 SBS TV의 「초특급 일요일 만세」의 한 코너인 '이영자의 다이어트 특장' 및 '실제 상황, 이영자 시집간다'이다. 최근 우리 사회 내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이영자 파문'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으며 그에 얽힌 여러 사안들과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PD 수첩」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영자가 방송계에 다시 컴백한 이후 토크 쇼나 여러 미디어의 인터뷰 대상이 되어 다이어트 붐을 조성했을 당시 그녀가 지속적으로 출연한 방송이며 화제가

된 그녀의 다이어트를 극적으로 의미화한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실제 상황, 이영자 시집간다'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실제 상황, 이영자 시집간다' 속에 포함된 '이영자의 다이어트 비법 코너'를 특집으로 다룬 '이영자의 다이어트 특강'을 역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분석 방법은 기호학적 방법인 통합체 및 계열체 분석 방법과 그레마스 A. J. Greimas의 행위주 모델 분석이다.

(1) 계열체 분석과 통합체 분석

통합체 분석이란 어떤 종류의 이야기체를 형성하는 사건들의 결과로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통합체 분석에서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로 구성된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그 구조는 각 단위들(기호들)이 수평적·통시적으로 연결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기호들의 수평적 연결이 전체 이야기 흐름에서 갖게 되는 전반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한편, 계열체 분석이란 의미를 생성하는 대립들의 숨겨진 패턴을 찾는 작업이다.⁹⁾ 즉, 텍스트 속에서 의미를 발생시키는 내재된 이항 대립의 유형을 밝혀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립 관계는 언어의 의미 생산에 있어 중요한 관계이므로 대립을 통해 사회적 함의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¹⁰⁾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PD 수첩」과 '이영자의 다이어트 특강' 및 '실제 상황, 이영자 시집간다'의 이야기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통합체 분석을 사용할 것이며, 각각 담론의 의미 구조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속성 분석

9) 백선기, 『보도의 기호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7, p.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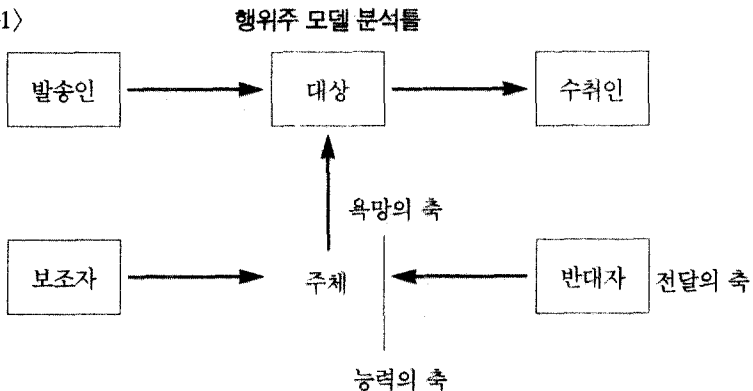
10) 백선기·오은영, 「텔레비전과 페미니즘—TV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 연구 1995』, p. 191.

을 위해 계열체 분석을 사용할 것이다.

(2) 그레마스의 행위주 분석

그레마스의 '행위주 모델'은 담론 전체에 등장하는 행위주들의 역할이나 기능을 연계하면서 전체 담론이 지향하는 중심 행위나 역할을 밝혀주는 모델이다. 먼저 전체 담론의 '주체subject'와 '대상object'을 밝혀내어 담론이 표상하고자 하는 중심 주체와 그것이 지향하는 중심 행위 및 그 대상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주로 연결 conjunction이나 이접 disjunction의 관계로 나타난다. 여기서 연결의 관계는 주체와 대상이 포함적 관계나 소유 관계 등에 있을 때를 가리키며 이접 관계란 주체와 대상이 갈등 관계나 포함적이지 못한 관계 등에 있을 때를 가리킨다. 이 밖에도 발송인destinateur과 수취인destinataire이라는 또 다른 행위주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대상을 중심으로 대립적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보조자adjuvant와 반대자opposant란 행위주도 등장하는데 이는 주체를 중심으로 '도와주는 자'와 '반대하는 자'로 대립적 관계를 띠면서 나타난다.¹¹⁾ 그래서 다음과 같은 행위주 모델의 분석틀이 완성된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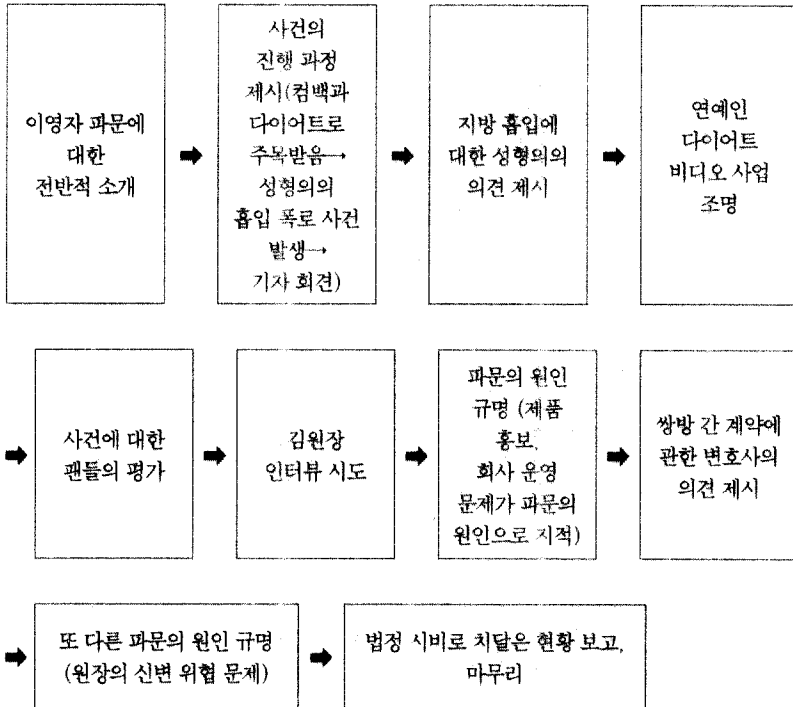


11) 백선기, 앞의 책, pp. 300~01.

4. 연구 결과

I. 「PD 수첩: 다이어트 산업, 스타를 이용하라」에 대한 분석 결과
먼저 「PD 수첩」의 이야기 전개 방식, 통합체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PD 수첩: 다이어트 산업, 스타를 이용하라」의 통합체 구조



이러한 통합체 구조로부터 주요 사안들을 추출, 사안들과 연관된 담론의 수행자들을 각각 묶어 담론을 구획,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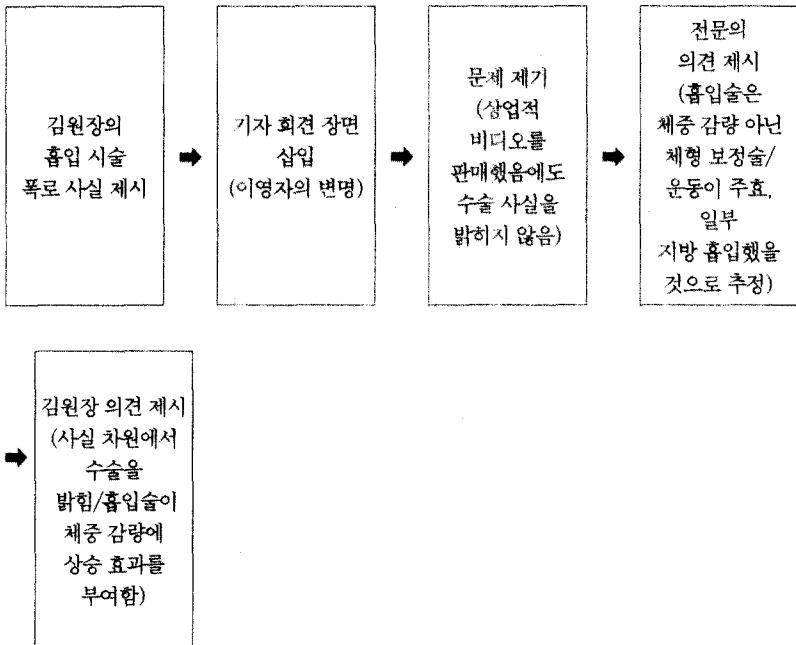
〈표-1〉 「PD 수첩」의 네 가지 담론 유형과 수행자들

담론	담론 내용	담론 수행자
의학적 담론	지방 흡입술 시술 여부 및 효과 규명	이영자, 김원장, 성형의
사업적 담론	연예인의 다이어트 비디오 사업 조명, 땡깡이 사업 관계 규명	이영자, 김원장, M사, A사, CATV 등 다이어트 산업 관계자 및 변호사
사법적 담론	김원장 측에 대한 위협 사건 및 명예 훼손,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조명	이영자, 김원장, 경찰, 수사 관계자, 경비원, 목격자, 변호사 등
윤리적 담론	공인으로서의 이영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평가	이영자, 소속 기획사 본부장, PD 수첩, 팬(일반인)

1) 의학적 담론

(1) 담론의 통합체적 분석

〈그림-3〉 의학적 담론 전개 방식



이 담론은 '이영자의 운동만으로 이뤄진 다이어트' 담론을 전제로 하고 이어 김원장의 흡입술 폭로로 인해 기존의 이영자 담론의 정당성이 위협 받으며 이러한 두 사람의 담론이 대립을 이루는 가운데 성형의의 담론이 제3의 관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쟁점은 바로 '지방 흡입술의 실제적 효과'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각각의 인물들에 의해 다르게 논의되고 있으며 흡입술 시술에 대한 진위의 문제에서 효과의 문제로 담론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 계열적 분석에 의한 담론의 의미 구조

의학적 담론 내에는 세 담론이 내재하며 계열적으로 이영자의 몸 하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

〈표-2〉

의학적 담론 내 계열적 대립

담론	몸
이영자의 담론	이영자의 몸
김원장의 담론	
성형의의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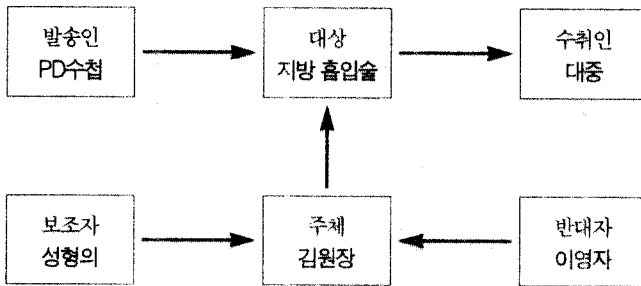
이러한 계열 관계는 '의학적 담론'에서 몸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몸에 대한 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예전의 이영자의 담론은 이영자의 몸과 하나의 결합 관계를 이루고 있었지만 김원장의 흡입 시술 폭로 이후 세 가지 담론은 이영자의 몸에서 진리 담론으로 합당한 자리를 경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흡입술의 체중 감량 효과라는 문제와 맞물려서 무엇이 그토록 이영자의 몸을 날씬하게 만들었는가에 쟁점을 낳는 것이다. 예전의 이영자의 다이어트 담론은 날씬해진 몸 위에서 진리를 가지며 하나의 진리 담론으로 사회에 유통이 되었던 반

면, 이제는 그 몸이 서로 다른 담론들의 알력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3) 담론에 나타난 행위주들의 관계 구조

〈그림-4〉

의학적 담론의 행위주 관계



우선, 미디어를 대변하는 「PD 수첩」과 대중 간에는 발송인-수취인의 관계가 성립한다. 발송인은 수취인에게 ‘지방 흡입술’이라는 담론을 전달하며 그것은 주체인 김원장의 폭로 욕망을 통해 가시화된다. 김원장은 지방 흡입술이라는 전복적인 담론의 공개를 욕망하는 자로 이제까지 사회 내에 유통된 다이어트 담론의 수행자인 이영자와 대립한다. 주체에 대해 보조적 역할을 맡는 것은 성형의로 대변되는 의학계라고 할 수 있다. 「PD 수첩」에서 흡입술을 부분적으로나마 했을 것이라는(그리고 효과를 보았을 것이라는) 성형의의 판단이 나오는데 이는 ‘운동만으로 살을 뺐다’는 이영자의 의견과는 대립되는 주체의 의견을 지지하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체가 욕망하는 지방 흡입술은 이영자의 기존 다이어트 담론의 허위성을 고발하는 폭로의 도구일 뿐 아니라 수취인에게 새로운 ‘지식, 담론’으로 전달된다. 다시 말해 지방 흡입술이란 대상은 ‘사실’의 차원의 폭로에 머물지 않고 ‘가치’ 차원의 지식, 담론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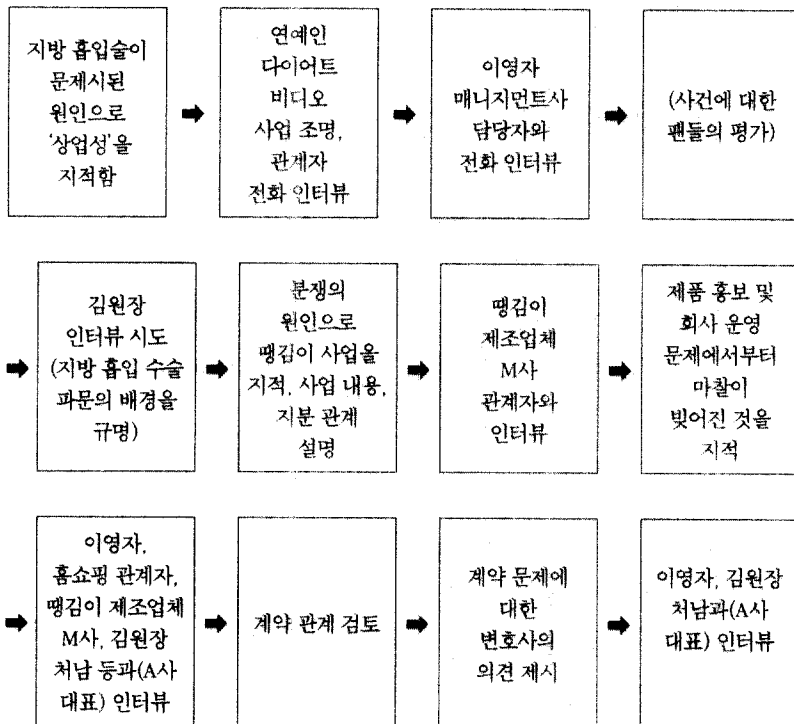
한편, 보조자-주체-반대자의 '능력의 축'은 '지방 흡입술'에 관한 담론의 전개 국면(진위 차원에서 효과 차원에서의 검증, 확인)을 내포한다. 이러한 능력의 축의 경쟁 관계를 통해 사회 내에서 정당성을 띠고 생산, 유포될 수 있는 진리 담론이 생산되는 것이다.

2) 사업적 담론

(1) 담론의 통합체적 분석

사업적 담론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그림-5〉 사업적 담론 전개 방식



→ 명료하지 않은 계약을
파문의 한 원인으로 지적

이상의 담론 전개에서 사업화되고 있는 상품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다이어트 비디오'이고 다른 하나는 '뽕김이'이다. 이 두 제품은 이영자와 소속사, 이영자와 A사와의 이중 계약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이룬다. '뽕김이'에서의 계약적 문제는 이영자의 초상권과 홍보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다이어트 비디오'와 서로 이권의 경쟁 관계를 이루며 갈등 관계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담론의 쟁점은 '제품 홍보'와 '그 계약적 방법'으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다.

(2) 계열적 분석에 의한 담론의 의미 구조

〈표-3〉

사업적 담론 내 계열적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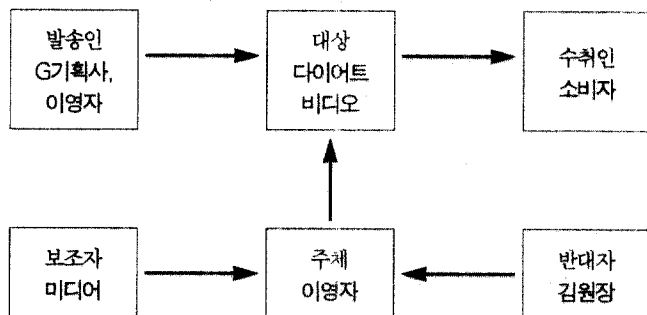
이영자	김원장
다이어트 비디오	뽕김이
몸 이미지-다이어트 담론- 제품의 일체화	몸 이미지-다이어트 담론- 제품의 연결 관계는 분리 가능함

사업적 담론에서는 두 가지 제품이 하나의 몸 이미지를 두고 계열 관계에 놓여 있음이 발견된다. 다이어트 비디오는 이영자의 몸과 담론과 제품이 영상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일체화된 반면, 뽕김이는 담론을 표상하는 몸 이미지와 제품이 홍보 동영상, 광고라는 매체를 통해 연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광고의 활용 여부는 이영자와 김원장의 사업적 갈등을 이루고 있으며, 몸 이미지는 다이어트 담론을 함축하고 표상하는 하나의 권

력으로써 제품의 판매를 좌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3) 담론에 나타난 행위주들의 관계 구조

〈그림-6〉 다이어트 비디오를 중심으로 한 행위주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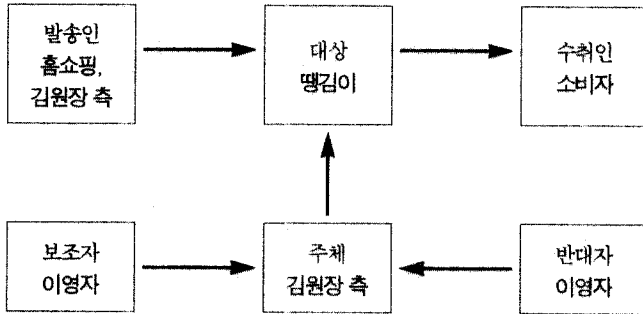


다이어트 비디오라는 상품-대상을 결핍하고 있는 수취인은 소비자이다. 발송인인 소속 매니지먼트사인 G기획사는 결핍을 메워주기 위해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 주체인 이영자와 계약을 맺게 된다. (이영자는 발송인과 주체, 두 가지 행위주 역할을 맡는다.) 주체인 이영자는 보조자인 미디어에 의해 다이어트 비디오의 상품성을 드높이게 할 지지를 얻게 된다. 이때 보조자는 그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여 일종의 간접 광고를 대행해주고 있는 셈이다. 보조자는 대상을 발송인에서 수취인으로 전달하는 관계를 보다 매끄럽고 원활하게 만들고 주체와 대상을 긴밀하게 엮어주는 것이다. 주체와 대상 간 '욕망의 축'은 다이어트 비디오를 상품화해 이익을 얻기 위한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주체의 다이어트를 담론화하고 이를 상품과 연결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체의 몸과 상품 간의 관계 맺기가 작용한다.

한편, 반대자는 이영자의 다이어트 담론의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다이어트 비디오를 허위적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김원장이다. 주체와 대상 간

의 몸 이미지와 상품의 관계맺기, 아울러 소비자와 상품의 관계맺기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이어트 비디오를 둘러싼 행위주들의 위치는 사실 '땡김이'에서의 위치 관계에 의해 배정받게 된다.

〈그림-7〉 땡김이를 중심으로 한 행위주 관계



먼저, 대상인 땡김이와 관계 맺는 주체는 김원장 측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주체를 보조하는 것은 동영상 화면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이영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조자였던 이영자는 홍보 요구의 과다와 기획사와의 이중 계약 등으로 인해 김원장 측의 요구에 불응, 홍보를 거절함으로써 주체인 김원장 측의 반대자가 되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발송인은 수취인인 소비자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사업체, 홈쇼핑과 김원장 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달의 측' 상에서 김원장의 '욕망의 측'을 끌어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보조자와 반대자의 행위주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능력의 측'에서 동시적인 관계를 지니지 않고 시차성을 띠고 김원장과 협력하거나 방해할 하는 관계를 맺는다. 돕거나 방해를 하는 방식은 바로 자신의 몸 이미지를 주체가 활용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홍보 동영상(몸 이미지)은 '보조'와 '반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다이어트 비디오가 이영자와 소속사인 G사 사이의 계약으로 묶인 '상품'이라면 홍보 동영상은 이영자와 김원장 측 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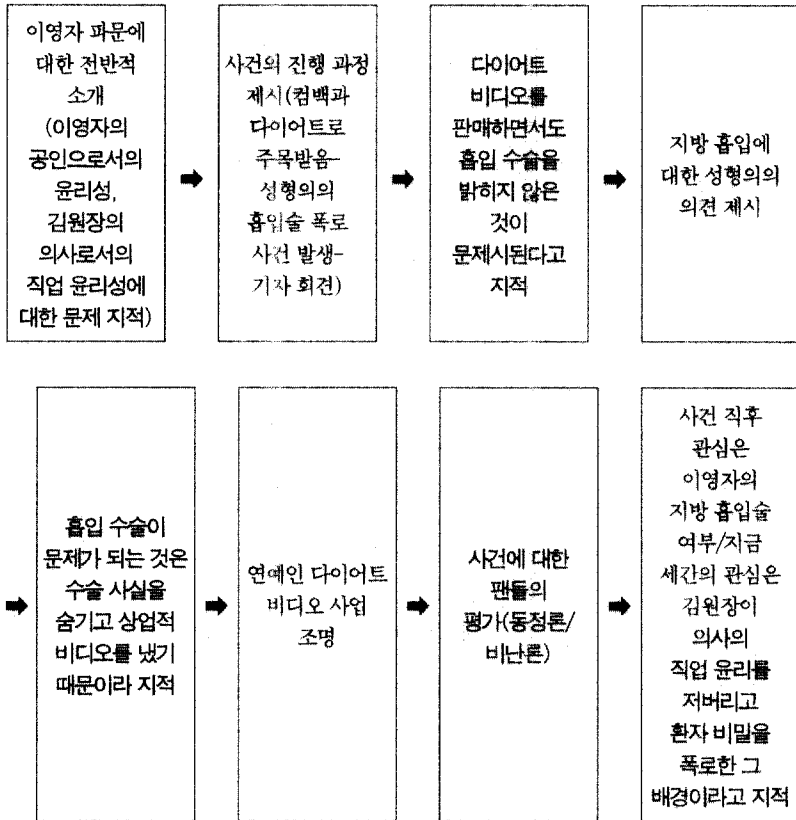
은 둘의 합자 회사인 A사와의 잠정적 계약으로 엮인 '도구'인 것이다.

3) 윤리적 담론

(1) 담론의 통합체적 분석

〈그림-8〉

윤리적 담론 전개 방식



이상의 담론 전개를 살펴보면, 그 쟁점은 김원장의 환자 비밀 폭로라는 윤리적 위배보다는 흡입술 은폐 및 대중에 대한 기만 등에서 나타난 이영

자의 공인으로서의 윤리성 문제이다. 이 답론은 이영자의 기존 다이어트 답론이 전제된 상태에서 새롭게 폭로된 김원장의 지방 흡입술 답론을 통해, 그동안 이영자의 답론을 신뢰하고 그에 정당성을 부여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관계가 깨어진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2) 계열적 분석에 의한 답론의 의미 구조

〈표-4〉 윤리적 답론 내 계열적 대립

이영자		김원장
공인 윤리 위배		직업 윤리 위배
이영자에 대한 동정론 개인으로서의 이영자	이영자에 대한 비난론 공인으로서의 이영자	

답론 내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공인의 윤리와 직업의 윤리라 할 수 있다. 이 윤리성은 상반된 위상을 가지고 답론에 작용한다. 즉 공인의 윤리는 진실성을, 직업의 윤리는 비밀을 그 조건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공인 윤리의 위배로 「PD 수첩」은 상업적인 비디오를 내고 흡입술을 은폐한 사실을 들고 있는데 ‘기만성’과 ‘허위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팬들의 평가는 개인과 공인 차원에서 동정과 비난으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영자는¹²⁾ 흡입술 은폐 이유를 ‘효과를 보지 못한 방법은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데에서, 그리고 ‘여자로서의 수치심’ 때문에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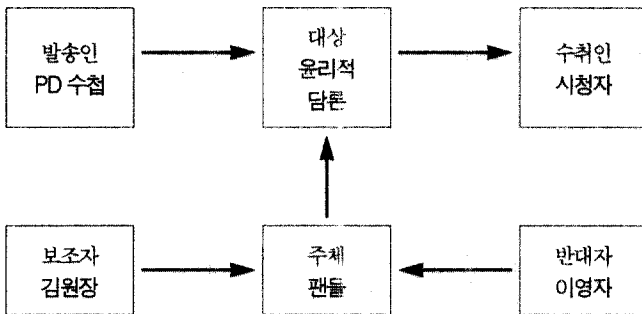
12) 윤리적 답론의 연결 구조에서 두번째 이야기 구조의 ‘기자 회견’에서 나오는 이영자의 답론이다.

하기 어려웠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그녀는 윤리적 위배성을 자신의 수치심과 효과 정도에 대한 개인적 평가의 차원에서 해석함으로써 판단의 의미 범주를(사실의 은폐, 기만에서 사실 공개의 불필요, 수치감을 동반한 극히 사적인 비밀) 옮기고 있는 것이다. 즉 이영자는 '개인'의 입장을, 주체인 팬들은 '공인'의 입장을 각각 주장함(물론 개인적 관점에서 이영자를 바라보는 입장도 있다)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으로서의 이영자의 입장은 '상업적 목적' '기만과 허위성'이란 문제와 연결되는데 이는 거꾸로 사업적 담론에서 제품에 전제되는 몸의 표상화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다이어트 담론의 허위성으로까지 문제의식이 소급되는 것이다.

(3) 담론에 나타난 행위주들의 관계 구조

〈그림-9〉 윤리적 담론의 행위주 관계



위의 도식에서 발송인인 「PD 수첩」은 PD라는 담론 수행자를 통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함으로써 윤리적 담론을 수취인인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주체는 대중, 시청자를 대변하는 팬들로서 환유적 입장에서 그들은 윤리적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행위주가 된다. 그런데 이 「PD 수첩」에서 주로 논의되고 쟁점화되는 것은 김원장의 직업 윤리보다는 이영자의

공인 윤리라는 점에서 또 김원장의 직업 윤리 위배가 공인 윤리 위배를 드러낸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보조자는 김원장이 된다. 김원장은 스스로 윤리적 위배를 통해(직업 윤리) 새로운 윤리적 담론(이영자의 공인 윤리 위배에 대한)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자는 이영자로서, 흡입술은 폐 이유를 효과를 보지 못한 것과 시술 받은 신체 부위를 언급하기 어려운 수치감에서 찾음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스스로를 옹호한다. '능력의 축'에서의 갈등은 공 : 사의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존재에 대한 확대 : 축소의 의미적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달의 축에서 거론되는 것은 공적인 차원에서의 이영자로서 사적인 이유를 통해 그녀의 흡입술은 폐가 축소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II. '이영자의 다이어트 특강'에 대한 분석 결과

1) 계열체 분석: 주요 등장인물들의 역할 분석

이 프로그램에서 날씬하게 보이는 Guy, 샤크라, 그에 비해 덜 날씬한 이영자 모두 다이어트를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되는 반면 도우미는 모범이 되는 완벽하며 절대적 몸매를 가진 인물로 규정된다. 여기에는 몸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영자'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차원을 지닌다 하겠다.

〈표-5〉 몸매에 대한 세 층위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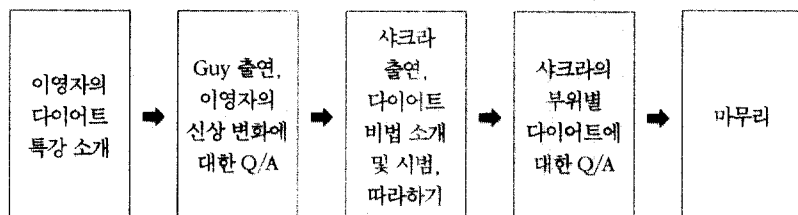
도우미	이영자	Guy, 샤크라, 방청객
완벽한 신체	정상인 신체	
다이어트 비법을 보여주는 인물	다이어트 비법을 아는 인물	다이어트 비법을 모르는 인물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인물	다이어트를 스스로 필요로 하는 인물	다이어트를 스스로 필요로 하는 인물

비정상에서 정상의 차원으로 몸을 변화시킨 것은 '이영자의 다이어트 비법'이며 그것은 이상 차원의 몸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인식에서 여성의 몸은 이상적 몸의 이미지 하에 삼분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의 목표는 결코 정상의 차원에 머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정상'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또한 임시적, 잠정적인 것이다.

다이어트 조교로 외화된 이상적인 몸이 지닌 권력성은 이처럼 나머지 등장인물들에게서 몸의 차별성을 없애고 획일적인 다시 말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몸'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이상적 몸매를 약속하는 다이어트 비법은 지식-권력의 형태로서 이상적 몸의 권력과 결속되고 있는 것이다.

2) 통합체 분석: 이야기 전개 구성 및 연결 방식

〈그림-10〉 '이영자의 다이어트 특강'의 전개 구성 및 연결 방식



첫번째 이야기 구조는 이영자의 다이어트 성공담과 다이어트 방법의 특별함, 그리고 이영자가 성공했으므로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으리란 기대치 제공으로 요약되는데 '사라진 36kg의 비밀, 이영자 다이어트 특강 전격 공개'라는 멘트로 마무리되고 있다. 즉 놀랍고 궁금한 사실을 '비밀'로 의미화하고 그것을 '공개'라는 형태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호기심과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이야기 구조에서는 Guy가 나와서 이영자의 다이어트와 신상의 변화를 묻고 있다. 다이어트의 원초적인 동기과 그것을 통해 욕망하는 것, 그 결과에 대해 묻고 있는데 각각 자신감의 회복, 외모를 통한 자기 만족, 자기 도취가 답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다이어트 의미의 시작과 끝은 '자기 만족'이란 테두리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상이 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기성복과 작은 사이즈, 노출이 심한 옷에 몸을 맞춤으로써 자기 만족을 꿈꾸고 남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혼자 상상에 빠짐으로써 자기 도취에 이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타자성에 기초한 자기 만족으로 다이어트는 의미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이야기 구조는 샤크라가 나와서 모든 등장인물들과 함께 다이어트 체조를 하는 것이 주 내용을 이룬다. 여기에서는 모두 6가지 종류의 운동 방법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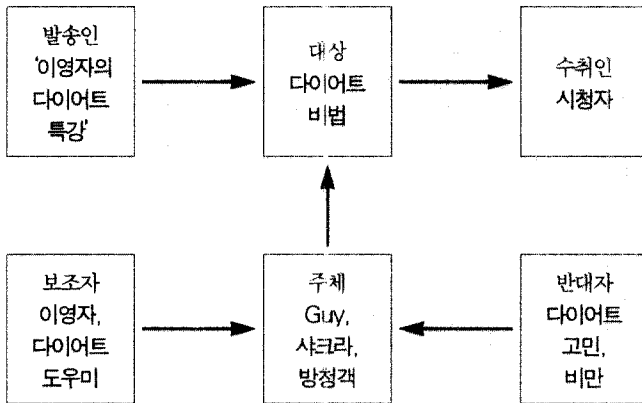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비법'으로 명명함으로써 여기에 나오는 운동들은 모두 이영자만의 전유되고 '특화'된 속성을 가진 것처럼 인식된다. 다이어트 비법의 전유, 특화된 속성은 세번째 이야기 구조에 삽입되어 나오는 다이어트 비디오의 화면 속 자막을 통해 전문화, 검증화된 힘을 부여받는 것처럼 보인다.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자막은 이영자의 다이어트를 권위화하고 다이어트 비디오에 대한 신뢰성을 시청자에게 심어주는 한편 간접 광고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영자의 다이어트 비법'은 특화→전문화→일반화라는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담론의 권위를 얻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네번째 이야기 구조는 샤크라가 자신의 신체적 고민과 연관해서 부위별 다이어트 비법을 묻는 것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다이어트는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여성이라면 모두가 고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처럼 제시된다. 여기에서 '다이어트'는 날씬한 신체보다도 완벽한 신체를 지향하는 미학적 가치로 의미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목표를 위해 세분화된 다이어트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다섯번째 이야기 구조에선 이영자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활 속의 운동이라고 밝히며 작별 인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끝맺고 있다.

3) 행위주 분석

〈그림-11〉 '이영자의 다이어트 특강'의 행위주 관계



발송인은 '이영자의 다이어트 특강'이란 프로그램이며 수취인은 시청자이며 전달하는 대상은 다이어트 비법이라는 지식이다. 이 대상을 욕망하는 주체는 Q/A를 통해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을 묻거나 이영자의 다이어트 동기 등을 묻는 출연자인 Guy와 샤크라, 체조를 따라하는 방청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영자가 직접 다이어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을 통해 답변을 해주고 또 시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욕망을 충족해주는 형국으로 상황은 연출된다. 여기서의 주체는 시청자의 궁금증과 욕망을 대변해주는 환유적인 주체가 된다. 이 주체의 욕망 달성을 보조해주는 것은 다이어트 비법을 알고 있는 이영자와 이를 시범으로 보여주는 다이어트 도우미이다. 이들은 보조자로서 주체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고민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반대자는 실제의 인물, 연기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살과의 전쟁' '모든 여성들의 풀리지 않는 고민' '비만에서 탈출' 등등의 어휘와 표현을 통해 볼 때 하나의 속성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즉 환유적인 주체의 다이어트 고민, 비만 등의 속성이 잠정적인 반대자의 위치를 차지한다. 반대자는 주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되는 한편 '자신과의 싸움'으로 다이어트를 의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영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로 이제 그러한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보조자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III. '실제 상황, 이영자 시집간다'에 대한 분석 결과

1) 계열체 분석: 주요 등장인물들 역할 분석

(1) 이영자

〈표-6〉 신체 및 시간적 관점에서 비교되는 이영자의 특성

과거의 이영자	지금의 이영자
뚱뚱함	날씬함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역할	한 남자의 여자, 신부 역할
자신감 없음	자신감이 생김
성적 매력 없음	성적 매력 있음
애교 없음	애교 있음
능동적	수동적
이성과의 신체 접촉 없음	신체 접촉 있음
포옹의 주체	포옹의 대상
예외에서 벗어나는 어휘 사용	예외 바른 어휘 사용
매너 없음	매너 있음
거칠고 무뎠던 행동	다소곳하고 양전한 행동

웃음의 대상	남간적인 상황의 대상
먹는 것이 주로 화젯거리	다른 화젯거리
비여성적	여성적

이영자는 '다이어트를 하고' '안 하고'의 차원에서 과거의 이영자와 현재의 이영자로 구분되고 있다. 똥똥했을 때의 그녀는 자신감이 늘 부족하고 성적 매력이 없는 존재로 취급받으며 애교 역시 없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리고 행동 역시 거칠고 투박하며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주변 상황에 잘 맞지 않는 예의에서 어긋난 어휘를 사용하며 화젯거리는 늘 먹는 것에 머무르는 인물로 이야기된다. 그녀가 똥똥했을 때 맡은 역할은 버스 차장, 섬마을 여선생 등 어딘지 촌스럽고 회화화된 인물들이다.

반면 다이어트로 날씬해진 그녀는 자신감이 넘치며 성적 매력과 애교가 넘치고 다소곳하고 매너 있는 행동을 보이며 언어 사용 또한 상황에 적합한 어휘를 구사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또, 그녀가 맡은 역할은 예전과 달리 한 남자의 여인, 신부로 규정되고 있다. 이런 비교는 모두 '여성적' '비여성적'이란 기준을 항상 수반하고 있다. 남자 파트너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논의가 '이.시.대'(이영자 시집보내기 대책위원회) 및 다른 보조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변 인물들이 평가하는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은 종종 깨뜨려지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휘 사용' '매너' '행동' '대상으로서의 의미' '화젯거리' '여성성'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즉 신체의 외형에 따른 이분법은 (똥똥함-날씬함) 주로 행동과 표현 양식 측면에서 깨뜨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돌발적 상황을 연출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2) '이.시.대'

〈표-7〉 '이.시.대'의 특성 및 기능, 역할

등장인물의 성별 분류		특성	기능과 역할	공통점
여성	홍진경, 이소라, 엄정화, 최화정, 정선희, 김원희, 백지연, 이경실	다수, 남성인 윤다훈의 담론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제시하는 의견 및 관점을 수용함. 주로 보여지고, 설명되는 입장	이영자의 보조자	⇒남성 중 심적 관점 에서 이영 자의 행동 양식, 태 도 등을 교정하려 고 함.
남성	윤다훈	수적으로 여성에 비해 소수이지만 담론의 권위를 존중받음, 여성성 및 여성의 매력 등을 남성들 대변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함. 주로 보고, 설명하는 입장.		

'이.시.대'는 이영자가 맞선 상대와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과 만나는 과정에서 그녀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거나, 모니터로 지켜보며 부적절한 행동 양식에 대해 지적을 해주는, 극적 전개에 있어 일종의 보조자들이다.

윤다훈은 '이.시.대' 가운데 유일한 남성이며 2회와 5회에서 각각 남성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이영자의 예전의 몸과 다이어트를 한 지금의 몸이 갖는 의미의 차이를 얘기하고 무엇이 여성적인 몸가짐과 행동 양식인지를 지적하고 충고해주는 인물이다. 2회에서는 다른 '이.시.대' 위원들이 그에게 남성적 관점에서 이영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의 답변 및 의견에 동의하고 그에 맞춰 이영자의 행동을 '여성스럽게' 조율하려고 한다. 여성은 수적으로 다수이지만 담론의 권력은 유일한 남성인 윤다훈에게 집중되고 있다. 윤다훈의 담론은 '이.시.대'의 모든 여성들이 권위화하고 존중하는데 그는 이러한 권위성과 함께 웃음 유발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의 '웃음'은 비여성적인 행동 양식 및 태도 등을 지적하고 검열해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윤다훈은 이영자뿐 아니라 '이.시.대'의 여성위원들에 대해서도 여성성과 매력 등을 건주고 평가하는 인물로 주로 '보고 설명하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 이영자를 비롯한 '이.시.대' 여성 위원들은 윤다훈에 의해 '보여지고 설명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성 위원들이 이영자에게 행동 양식이나 태도 등에 대해 충고를 하거나 지적을 할 때에도 그것은 늘 윤다훈으로 대변되는 남성 관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남자 파트너

이들은 모두 '벤처 사업가' '마케팅팀 대리' '약사' '로펌 근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시.대' 위원들에게 인정, 평가받는 것은 능력과 외모에 있어서의 호감도이다. 외모와 함께 이들의 사회적 가치가 '이.시.대' 위원들에 의해 이영자와 견주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이영자는 어딘지 남자에 비해 부족한 자질을 가진 상대로 은근히 '이.시.대' 위원들에 의해 평가받는다. 이영자는 남자 파트너 앞에서 웃음의 대상으로 비쳐지는 반면 남자 파트너는 거의 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선해 보이거나' '강하고 부터 나게 보이고' 또는 '해맑고 포근하거나' '과묵한' 인물들이며 회극성 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남자 파트너들은 주체적 위상을 갖고 자신을 거리낌없이 표현하지만 이영자가 그 자신을 표현할 때는 늘 웃음이 유발되고, 이는 남자 파트너 앞에서의 부적절한 상황 연출이란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영자는 이런 웃음, 남성적 시선 앞에서 종속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8〉

남자 파트너의 특성 및 기능, 역할

등장인물	특성	기능과 역할	공통점
3회 남자 파트너	유능하고 패기 있는 벤처 사업가로 소개됨. 인상이 좋고 선해 보인다는 평을 받음.	이영자의 파트너	⇒능력 있고, 상대방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들. 이영자와 달리 회화화되지 않음.
4회 남자 파트너	회사원, 만능 스포츠맨으로 소개됨. 강해 보이고 부터 나게 생겼다는 평을 받음.		
5회 남자 파트너	약사, 포근하고 해맑은 얼굴을 가졌다는 평을 받음.		
6회 남자 파트너	로펌에 근무. 이목구비가 수려하다는 평을 받음.		

(4) 남자 파트너의 가족 및 친지

이 세 인물들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요소는 여성에 대한 보수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버지·어머니·형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과 이영자의 대화는 자녀 계획, 살림, 부모님께 대한 도리 등 보수적·가부장적 가치관에 연결되고 있으며 그에 의해 이영자가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자가 여성으로서 적합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지를 관찰, 지적하는 이.시.대의 보조적 도움은 결국 이들의 가부장적 가치관 및 그에 의한 판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의 판정이란 이영자가 며느리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가족의 판단인데 집 대문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로 극중에서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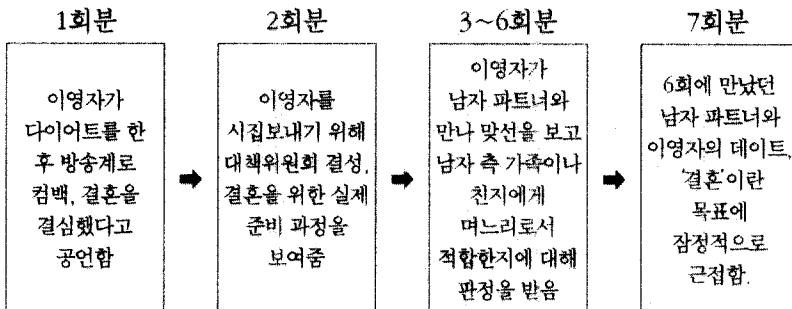
이들의 판정은 이영자의 사회적 정체성을(신부, 며느리) 규정 짓는 가장 강력한 최종 심금으로 권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남녀의 개별적 사랑보다는 가부장적 관점을 고수하는 기존 가족 제도 속으로의 여성의 사회적 재편을 의미하고 있다.

〈표-9〉 남자 파트너의 가족 중 중심 인물의 특성 및 기능, 역할

중심화되는 인물	특성	기능과 역할	공통점
3회: 아버지	보수적, 가족 중심적.	이영자를 시험하고 평가함.	⇒보수적 · 가부장적 성격. 가부장적 관점에서 이영자를 재단하고 평가함.
4회: 어머니	보수적, 완고함. 연예인 며느리를 두는 어려움에 대해 걱정함.	이영자가 며느리로서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 평가함.	
6회: 형	보수적. 이영자가 동생의 아내로서 적합할지에 대해 걱정함. 아이 잘 낳고 효도하는 게 부모님께 대한 도리라곤 이야기함.	이영자를 평가함.	

2) 통합체 분석: 이야기 전개 구성 및 연결 방식

〈그림-11〉 '실제 상황, 이영자 시집간다'의 이야기 전개 구성 및 연결 방식



첫번째 이야기 구조에서는 이영자를 몸의 상태에 따라 예전과 지금으로

(비만과 날씬함) 대립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지금의 날씬해진 몸과 결혼을 연결하고 있다. 다이어트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신의 기제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몸뿐 아니라 역할 맡기에서도 이영자로 하여금 다른 위상과 가치를 갖도록 한다. 우스꽝스러운 역할은 과거의 뚱뚱한 몸에, 여성스럽고 차분하며 진지한 신부의 역할은 지금의 날씬한 몸에 어울리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다이어트는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획득하게 해주는 일종의 기제이며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몸 관리라는 의미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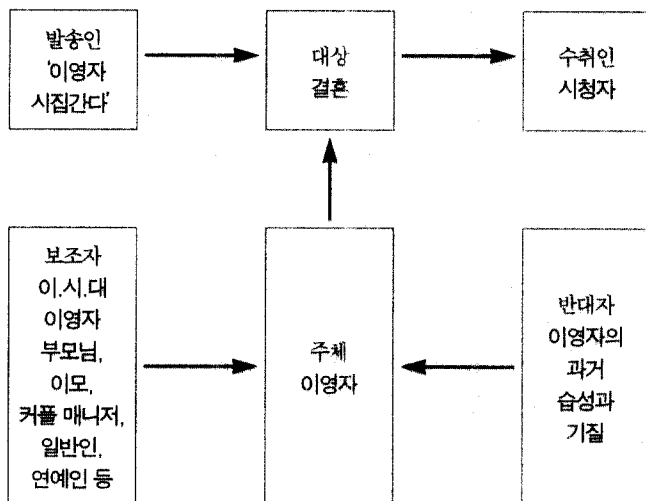
두번째 이야기 구조에서 이영자는 다이어트를 했지만 연애 경험이 없고 남자 앞에서의 자신감이 부족하며 행동 양식적 측면에서 미숙한 인물로 묘사된다. 특히 남성적 관점을 대변하는 윤다훈에 의해 이영자는 행동 양식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수정되어야 하는 인물로 규정된다. 그는 결혼이라는 목표 아래 꼭 이루어져야 하는 자기 관리의 양식으로 다이어트라는 몸 관리 외에도 성격 및 행동 양식의 교정, 훈육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세번째 이야기 구조에서 이영자는 몸은 다이어트를 했지만 행동 양식적 측면에서 비만했던 옛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든 맞선 과정을 모니터로 지켜보는 이.시.대 위원들에 의해 지적, 평가된다. 이영자는 내면의 행동 양식 등을 통제하는 시험을 남자 파트너 가족들에게 받음으로써 며느리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네번째 이야기 구조에서는 이영자가 결혼이라는 목표에 근접했음을 보여주며 아직도 이영자가 여성으로서의 완벽한 자기 관리에는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기혼자인 이경실은 이미 가부장적 가족 사회의 구성원으로 남성적 관점을 체화한 인물로서 이영자를 보다 신랄하게 회화화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과 회화화는 조신하고, 보다 자기 통제에 힘쓰고, 매력적인 존재로 자기 연출을 하는 여성이 올바른 여성의 이미지임을 역설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행위주 분석

〈그림-12〉 '실제 상황, 이영자 시집간다'의 행위주 관계



주체는 중심 인물인 이영자이며 그녀가 욕망하는 대상은 프로그램의 목표이자 개인적 목표로 삼은 결혼이다. 주체인 이영자를 수행자로 내세워 조종하는 발송인은 '이영자 시집간다'라는 프로그램이 되며 수취인은 그것을 지켜보는 시청자가 된다. 그리고 보조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이영자가 목표를 달성하게끔 도와주는 이.시.대, 첫번째 이야기 구조에서의 이영자의 부모님, 연예인들, 명동 현장의 일반인들, 두번째 이야기 구조에서의 커플 매니저, 이영자의 이모 등을 들 수 있다. 보조자들은 앞서 말했듯 주변의 의견을 모으고, 혹은 공개 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공론화함으로써 주체가 대상을 획득하기 위한 욕망을 정당화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다이어트'에 대한 호의적 반응을 나타내며 '결혼 준비를 위한 다이어트'라는 몸 관리 방식에 대해 이견 없이 동조하는 양상

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반대자는 직접적인 인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반대자가 독립된 행동자라기보다 반주체나 주체의 부정적 능력의 외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¹³⁾ 그레마스의 제자 안 에노 Anne Henault의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대자는 주체인 이영자가 욕망하는 대상인 결혼을 방해하는 이영자 자신의 비만했을 때의 관성적 습성·기질·행동 양식 등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시.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웃음거리가 되며 교정되어야 하는 몸의 과제를 이영자에게 내주는 일종의 동기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주 관계에서 몸은 하나의 관계 적응 양식으로 그 자신을 표출하는데 그러한 상호 관계는 남성적·가부장적 관점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주체의 대상인 결혼이 행위주 모델에서 의미하는 바는 남과 여의 개별적 사랑과 결합이 아니라 가족 관계 속으로의 편입임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5. 논의

I. 공통 담론의 유형

이상 분석한 「PD 수첩: 다이어트 산업, 스타를 이용하라」편과 '이영자의 다이어트 특강' 및 '실제 상황, 이영자 시집간다'에서 몸을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담론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3) 김치수 외 지음, 『현대 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p. 217.

〈표-10〉

세 분석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담론

PD 수첩: 다이어트 산업, 스타를 이용하라	이영자의 다이어트 특강	실제 상황, 이영자 시집간다
여성의 몸 담론 다이어트 담론 의학적 담론 사업적 담론 윤리적 담론	여성의 몸 담론 다이어트 담론 성 담론 소비 담론 공인에 대한 담론	여성의 몸 담론 다이어트 담론 성 담론 결혼 담론 소비 담론 공인에 대한 담론

「PD 수첩」에서는 몸과 관련된 담론으로 의학·사업·윤리적 담론이 발견된다. 이들은 여성의 몸 담론과 다이어트 담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담론으로 이 두 담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영자의 다이어트 특강」에서는 여성의 몸 담론, 다이어트 담론, 성 담론, 소비 담론, 공인에 대한 담론 등이 발견된다. 먼저 여성의 몸 담론과 다이어트 담론은 이 프로그램의 컨셉트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성 담론의 경우, 이영자가 다이어트를 남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의 성적 매력과 연관시킨 대목에서 발견된다. 소비 담론은 프로그램 내에서 간접적인 광고 기능을 맡고 있는 ‘땡깡이’에 대한 소개나 ‘다이어트 비디오’ 화면의 삽입, 소개 등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공인에 대한 담론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영자가 ‘모든 여성의 풀리지 않는 고민’인 다이어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강사로서 공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실제 상황, 이영자 시집간다」에서는 여성의 몸 담론, 다이어트 담론, 성 담론, 결혼 담론, 소비 담론, 공인에 대한 담론이 발견된다. 여성의 몸 담론은 주지하다시피 낯선함을 결혼의 자격이자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프로그램의 전반적 의도와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이어트 담론은 성 및 결혼 담론과 연결되면서 여성의 몸 담론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한편, 소비 담론은 2분 정도 삽입되는 '이영자의 다이어트 비법' 코너에서 발견된다. 여기에서도 '땡깡이'가 소개되고 상품화가 가능한 이영자의 다이어트 비법이 공공연히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영자의 다이어트 특강'에 와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공인에 대한 담론은 앞서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이영자 개인의 결혼을 공론화하고 공개화함으로써 이영자 개인의 몸과 극히 사적인 결혼에 공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극명하게 발견된다.

이상의 세 분석 대상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담론들에게서 어떠한 몸의 형태가 파생되는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11〉 공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담론으로부터 파생되는 몸의 형태

공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담론들	파생되는 몸의 형태
여성의 몸 담론	상징화된 몸 상품화된 몸 재생산된 몸
다이어트 담론	상징화된 몸 상품화된 몸 재생산된 몸
의학적 담론	상징화된 몸
사업적 담론	상품화된 몸
윤리적 담론	상징화된 몸
성	재생산된 몸
결혼	재생산된 몸
소비	상품화된 몸
공인에 대한 담론	상징화된 몸

여기서 상징화된 몸이란 공인으로서 미디어에 의해 표상되는 몸을 말하고 상품화된 몸은 몸 이미지가 자본과 연결되어 상품이 된 형태의 몸을, 재생산된 몸은 다이어트 실천을 통해 사회적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 몸을

말한다.

II. 공통 담론들에 나타난 세 가지 몸의 형태

1) 상징화된 몸

한국의 다이어트 시장이 지난 1992년의 다이어트 붐 이래 해마다 40% 이상 급성장해오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01년 1조 원, 오는 2003년쯤엔 2조 원 대의 거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식지 않는 다이어트 열풍을 말해준다.¹⁴⁾ 또 우리나라 10~20대 여성 10명 가운데 8명은 자신의 현재 체중에 만족하지 못하며,¹⁵⁾ 조사자의 74%가 다이어트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다이어트가 이미 구조화된 힘으로 여성의 몸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처럼 다이어트가 거의 일반화된 사회 환경은 미디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가 날씬한 몸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뿐 아니라 이에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디어는 미디어 수용자와 사회 구조 사이에 상징화된 특정한 몸 이미지를 끼워 넣어 담론 형성을 하는 것이다. '이영자'가 이에 해당되는데 그녀는 다이어트를 문화적 형태로 확산하는 구조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 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해진 이영자의 몸은 사회의 지배적인 다이어트 담론을 지지하는 한편 그만의 담론 또한 생산한다. 그것이 '이영자의 다이어트 비법' 담론인데, 구조로부터 (푸코의 개념인) 지식-권력으로서 사회적

14) 디지털 조선일보, 2001. 7. 15.

15) 디지털 조선일보, 2001. 10. 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영애, 정해랑 연구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은경 간사가 서울 거주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의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81.8%가 '자신의 현재 체중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 대상자의 74%가 체중 감량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비만도가 저체중인 대상자의 55.5%, 정상인 대상자의 77.8%도 체중 감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중 감량의 목적은 '날씬해지고 싶어서'가 86.8%였고, '건강 유지와 향상'은 10.8%로 나타났다.

가치를 부여받고 미디어는 이것을 하나의 진리 담론으로 유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비법 담론이 진리 담론으로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이어트가 사회 내에서 정당화된 실천 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당화된 다이어트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비법의 담론은 진리가를 지닌 담론으로 그것에 의해 가치를 부여받는 셈이다. 그리고 지식·권력으로서 다이어트 비법의 담론과 이를 표상하는 몸의 권력은 서로 일치되는 지점에서 다이어트 실천자들에게 지배 효과를 낳는 것이다.

이처럼 이영자의 '상징화된 몸'은 구조와 구조 속의 개인들 간의 권력, 힘의 절충 지점이랄 수 있다. 게다가 권력은 이영자의 몸 이미지에 전유되는 것도 담론에 전유되는 것도 아닌 몸 이미지와 담론을 관계 맺게 하는 하나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2) 상품화된 몸

일단 대표성을 획득한 몸은 다이어트와 연결되고 특정 다이어트 비법 담론을 생산하면서 상품화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 「PD 수첩」에서의 '사업적 담론'과 간접 광고의 기능을 수행한 '이영자 시집간다' 및 '다이어트 특강'에 나오는 뽕깬이와 다이어트 비디오는 이러한 사실을 예증해준다. 즉 사회적으로 다이어트가 붐을 이루고 자본이 침투되면서 다이어트는 산업화가 된다. 그런데 이는 다이어트를 통해 날씬해진 몸이 곧 자본이 됨을 함의하는 것이다. 몸은 자본으로 사회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 우세한 우리 사회에서 연애나 결혼을 하기 위해서(「이영자 시집간다」에서의 성, 결혼 담론) 노동 시장에서 취업이나 승진을 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일상적 압력은 몸을 곧 자본과 등가화한다. 이처럼 자본이 된 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몸에 투자해야 하는 역설이 생겨난다. 늘어나는 다이어트 산업의 규모는 날씬한 육체 자본을 얻기 위한 비대해진 자본의 투자를 말해준다. 다이어트 산업

은 효과가 좋다는 다이어트 비법을 제품화하여 판매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다이어트 산업이 광고하는 그 목표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므로 다이어트 산업의 팽창이 이뤄진다. 다이어트 산업은 다이어트 실천자의 끝없는 노력을 요구하면서 소비를 통해 소외와 착취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즉, 다이어트 상품 소비자는 사회에서 하나의 권력으로서의 육체 자본을 얻기 위해 다이어트 상품 생산자와 잠정적 합의와 동의를 거친 후 상품 소비를 위해 경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 합의는 불확실한 몸을 확실히 통제해주고 다듬어줄 지침을 제공할 '진리 담론'에 대한 합의를 뜻한다.

이는 부르디외가 논의한 자본의 전환 개념과 연결된다. 사회 내에서 경제 및 문화 자본으로 전환 가능한 몸의 상품화는 경제 자본에서의 분배와 균등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를 낳는 것이다. 즉, 몸이 갖는 가치가 사회적 불평등과 지배와 피지배의 억압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몸의 상품화는 이러한 구조를 지지하는 정당화된 생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문제시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재생산된 몸

다이어트 상품을 통해 날씬한 몸을 만드는 과정은 소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소비는 늘 꿈을 꾸도록 유도하는 광고를 수반한다. 다이어트의 구조적 힘은 강압이 아닌 생산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사회적 차원에서 관리, 규제하는 것이다. '이영자 시집간다'에서 다이어트와 결혼의 절합은 여성의 몸을 사회적인 용도와 목적에 맞게 배치하는 하나의 사회적 프로젝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몸의 날씬해진 변화'는 '역할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몸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사회적 의미 부여가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의미 부여와 인식 속에서 다이어트는 몸에 대한 구조적 힘이 되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날씬하면 구조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사회에서의 성공, 행

복한 결혼, 인정과 존중 등) 차지할 수 있다는 신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이 사회적 차원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욕망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관점이 바로 남성 중심적이라는 사실이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은 이러한 남성 지배적 구조와 여성의 몸을 연관 짓고 그것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미시적인 권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뚱뚱하면 남성에게 매력이 없는 존재이며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배제되며 아울러 부적절한 행동 양식을 표출하게 되는 사회 현상은 이러한 권력의 특성을 지시하고 있다. 반면 날씬한 여성은 몸뿐 아니라 그 행동 양식에 있어 남성적 기준과 관점에 의해 스스로를 규제하는 특성을 노출한다. 여성은 신체의 무게에서부터 몸의 크기, 자신의 행동 범위까지 축소 지향성을 띤다는 점에서, 다이어트와 행동 양식의 관리는 아비투스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몸 정치 양식이라 파악된다. 결국 다이어트는 단순한 살빼기가 아닌 사회의 지배 문화적인 패러다임에 의해 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규율인 셈이다. 문화의 형태로서 유포되는 다이어트 붐은 그야말로 무의식적인 지배를 여성에게 행사하고 여성은 그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됨을 의미한다.

III. 세 가지 몸의 형태가 지닌 의미

1)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몸의 의미

‘PD 수첩’과 ‘이영자의 다이어트 특강’ ‘이영자 시집간다’ 등의 분석을 통해 보면 이런 세 가지 메커니즘의 씨줄과 날줄이 교차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파악해볼 수 있다.

그것은 자립적이고 주체적이기보다는 미디어에 의해 상징화된 몸 이미지의 영향력에 노출되기 쉬우며 다이어트라는 집단적인 몸 관리 문화에 동화되기 쉬운 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확산된 이영자 다이어트 붐과 이를 부채질한 미디어의 태도와 반응 등에서 확인된다. 아울

러 미디어로부터 상징화된 몸과 연계된 다이어트 산업 메커니즘의 기반으로부터도 안전하지 않은 몸으로 파악된다. 또, 생산적인 욕망을 통해 여성의 몸을 다스리는 다시 말해 날씬해지면 자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의미, 역할이 변할 것이라는 환상을 주입하는 남성 중심적·가부장적 메커니즘에 의해 조종받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와 외모를 사회적 위치와 연관시키는 인식의 성향은 '이영자 시집간다'에서 결혼과 다이어트라는 테마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틀을 통해 여성의 몸의 미적으로 재단하고 있기에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읽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파악된다. 여성이 개별적으로 몸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에 사실 남성적 시선 및 가치관의 내면화를 미디어 등을 통해 은밀히 체화하는 남성 중심적·가부장적 메커니즘의 사회적 몸 규제가 내포된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여성의 몸 관리, 다이어트는 정치성을 떨 수 있는 자발적인 피치배 양식, 상징 권력에 대한 복속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미디어 메커니즘의 몸 이미지 제시, 다이어트 산업 메커니즘의 몸 관리 방법의 제시, 남성 중심적·가부장적 메커니즘의 몸에 대한 가치관 제시는 서로 연결되면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여성 몸의 이미지이며 적절한 몸 관리이며 몸의 가치인지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2) 여성의 몸과 이데올로기

이와 같은 구조적 메커니즘에 얽매이는 여성의 몸은 구조의 이데올로기에 쉽게 노출되는 대상이 된다. 세 메커니즘으로부터 여성의 몸에 투사되는 이데올로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보기로 한다.

먼저 상징화된 몸을 내세우며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미디어의 메커니즘은 몸 이미지를 통해 여성의 성 이데올로기와 다이어트 이데올로기를 접목한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에서 여성의 몸은 날씬해야 여성적인 것으로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실천되

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암암리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상품화된 몸으로 표상되는 다이어트 산업의 메커니즘은 상징화된 몸 이미지를 다이어트 담론 및 제품과 연관시키고 있다. 제품과 몸 이미지, 담론을 접목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소비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꿈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서의 상징화된 몸에 투사되었던 이데올로기들을 그대로 전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상징화된 날씬한 몸이 표상하는 의미와 꿈들에 제품이 연관되고 있는 것이다. 성 이데올로기, 다이어트 이데올로기, 역할 이데올로기 등이 제품의 광고를 통해 전달되며 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몸을 재생산해내는 남성 중심적·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몸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미디어 메커니즘, 다이어트 산업 메커니즘과 연결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6.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이영자 사건 관련 프로그램'의 담론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를 통해 제시되는 여성의 몸 이미지와 이를 수반하는 다이어트 비법의 지식은 담론화됨으로써 하나의 정당화된 권력으로 사회 구조 속에 자리 잡는다. 아울러 그것은 다이어트 산업과 연결되어 다이어트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 미디어가 제시하는 여성의 몸 이미지에 부여된 가치를 자본화하게 된다. 몸 이미지와 그에 이르는 비법, 아울러 그 몸이 사회적으로 무엇을 함의하는가에 대한 미디어의 제시와 산업 및 사회의 연계 구조는 여성의 몸을 포위하는——여성에게 의해 정당성과 합의를 부여받는——지배적 담론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으로 구축된 환경은 여성의 몸을 물화하며 늘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 짓는다. 그 과정에서 문화적 형태로 세밀하게 여성의 몸에 침투하는 상징적 권력은, 여

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 정체성을 문화화된 사회적 몸 정체성에 맞추게끔 유도한다.

결국 문화적 형태로 확산되는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권력 기구가 되는 미디어는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사회의 통제망이 된다. 여성은 낯선해야 하며, 낯섦은 유용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 몸이며, 그만큼 존중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미디어는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이다. 구조가 미디어를 통해 개인에게 행사하는 이 같은 권력은 개인의(구체적으론 몸의) 변화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개인을 변화시키려는 구조적 힘은 그만큼 구조에 대한 저항,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와 노력을 차단하는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비롯한 몸의 관리는 그만큼 모순된 구조에 봉사하는 '유용하고 유순한 몸 만들기'라는 복종의 의미를 갖는다. 다이어트의 실천은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몸'의 획득을 의미하지만 결국에는 남성 중심적·가부장적인 사회에 자발적으로 지배당하는 '유순한 몸'의 재생산을 뜻하는 것이다. 이 '유용성,' 존중받는 몸의 사회적 가치는 지배 구조의 힘에 짓눌린 '유순함'을 은폐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대한 여성의 저항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유용하지 않은 몸'을 가진 뚱뚱한 여성은 살아 나가는 데 있어 사회적 불이익과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적인 몸 담론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에 실질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지식-권력으로서 새로운 여성의 몸 담론 형성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참고 문헌

- 미셸 푸코(1998),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서강대 출판부.
발트라우트 포슈, 조원규 역(2001), 『몸 숭배와 광기』, 여성신문사.

백선기(1997), 『보도의 기호학』, 성균관대 출판부.
 ——(1997), 『한국 선거 보도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텔레비전 문화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심영희(1997), 「한국에서의 여성과 몸의 정치학 —Foucault의 담론 권력 이론에 기반하여」, 한양대학교, 『한국학 논집』 33.
 앤터니 기든스, 김미숙 외 역(2001),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존 스토리, 백선기 역(2000), 『문화 연구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크리스 윌링, 임인숙 역(1999), 『몸의 사회학』, 나남.
 피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역(1997), 『상징 폭력과 문화적 재생산』, 새물결.
 한서설아(2000), 『다이어트의 성 정치』, 책세상.
 홍성민(2000), 『문화와 아비투스, 부르디외와 유럽 정치 사상』, 나남.

Bell, A. & Garrett, P., eds.(1998),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Blackwell.
 van Dijk, T. A.(ed.)(1985),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Disciplines of Discourse*, vol. 1, Academic Press.
 ——(ed.)(1985),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Dimensions of Discourse*, vol. 2, Academic Press.
 ——(ed.)(1985),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and Dialogue*, vol. 3, Academic Press.
 ——(ed.)(1985),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Analysis in Society*, vol. 4, Academic Press.
 ——(ed.)(1997), *Discourse as Structure and Process*, Sage.
 ——(ed.)(1997),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Sage.
 Mills, S.(1997), *Discourse: the New Critical Idiom*, Routledge.

Meanings of 'Woman's Body' in Korean Society

—A Discourse Analysis on TV Programs of Young-Ja Lee's Accident

Baek Seon-Gi & Shon Song-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eanings of 'woman's body' in Korean society. In Korean society, in general, women are forced to be 'beautiful' with pretty face and tiny body shape. They are normally judged as their outlooks and body lines, not as their experts and capabilities.

Recently, one accident happened to occur in the field of Korean mass media. One famous woman comedian, named as 'Yong-Ja Lee' whose trade mark was 'fat comedian' lost weight successfully to get a beautiful body shape. But, in the respect of ways of losing weight, she and her medical doctor fell down into struggle and conflict. She insisted that she lost her weight by fitness activities only. But her doctor argued against it, and insisted that she was treated by medical care, especially medical surgeons. Finally it was revealed that she get some medical cares included medical surgeon. She disappeared at the field of mass media just after it came out.

The authors tried to investigate what kinds of discourses had been

made to deal with this accident, what kinds of treatments mass media did in covering her before and after she lost her weight, what kinds of meanings were implicated in this accident, and what kind of meanings woman's body would imply in Korean society.

In order to answer these invested questions, they selected three programs of Korean main television stations: that is, one program of MBC, and two programs of SBS. These programs were analyzed with semiological methods and discourse analyses. Expecially, they were analyzed in detail by a lot of discourses; for example, medical discourse, industry discourse, gender discourse, sexuality discourse, body discourse.

As results, first of all, it was found that the beauty of women w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Korean society. Beautiful face, body and body shape are most important parts for women's lives to compete with male colleagues. Secondly, all of these beauties are importantly judged as necessary factors for getting marriage. The beauties and tiny bodies are strongly forced to women to get attractives for men. Thirdly, diet, fitness, and health are important for women to get beautiful body lines and shapes. These fields have got into business and industries. Fourthly, in Korean society, women are getting more judged as her outlooks, not as her inner capabilities.

In conclusion, the women of Korean society are getting more stick to their beauty, body, and outlooks. It means that they are judged lower than men in many respects.

열쇠어: 여성의 몸, 이영자 사건, 다이어트, 아름다움, 몸과 권력, 몸의 정치학, 매스 미디어, 담론, 통합체, 제열체, 한국 사회.